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2시 지하친교실에서 보름맞이 웃놀이를 합니다.

오늘 1부 예배 중 2014년도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중 2014년도 찬양대 임명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청파교회학교 졸업예배가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졸업예배 관계로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22일(토)부터 23일까지 교회에서 열립니다.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다음 주일(23일) 오후 3시에 광희문교회에서 열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 교회 마당에는 주차를 삼가시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을 오래오래 바라보십시오. 달과 별이 말을 건네울 것입니다.

신 30:15~20 / 시 119:1~8
고전 3:1~9 / 마 5:21~37

눅 13:22-30

오늘 식당 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립 한양미 최미자 김필순 곽상준
다음 주 식당봉사 : 유경순 이은옥 박혜경 박미란 하미림 송형운 김훈동
오늘설거지봉사 : 이국노 5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이소혜 강세기 이소애 6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겨울 어두운 밤에도 보름달이 떠올라 가야할 길이 환히 보입니다. 빛이신 주님, 자꾸만 어두워지는 이 세상과 우리 영혼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야할 진리와 정의의 길을 주님께서 밝히 알려주십시오.

주님, 기록적인 폭설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따스한 햇살을 많이 비춰주셔서 쌓인 눈과 더불어 주민들의 시름까지 녹여주십시오. 온 국민의 관심과 도움으로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산에 사는 여러 생명들도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상준 최경미 김문주 김영아 김용길 최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훈 이진영 박기영 박예리 박창운 허정윤
 방극숙 서정순 양상철 박재란 오미경 원인해 유금주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이광석 이경희 이부곤 이우상 이계월 이윤석 박안수 이은빈
 이재문 이재훈 이지훈 임성은 임호성 장영숙 정복순 정영례 정우선
 정현모 조경자 조순덕 주은경 최윤희 한상경 한인철 조윤숙 허준호

감사헌금

강순배 곽권희 김종현 성귀옥 김지혜 김향자 문금석 박은경 박창운
 허정윤 방문성 박혜경 신민철 윤종인 이광희 이범석 류정욱 이병수
 정해숙 이유일 김미희 이증자 김창경 임명희 최미자 한미영 무명10

생일감사헌금

정두리

녹색꿈헌금

김지영 김흥기 시시권 백경임 이애리 장원호 박성희 무명2

	백혜숙 신진식 장영숙 노순옥 박홍재 권미숙 김금순 곽권희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김재흥 이범석 이범석 신진식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박홍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홍춘숙 박혜경 오자영 송형운 이진영 곽상준 윤성종	연합회	백혜숙 최경미 문영혜 노순옥 문복순 권미숙 오복순 곽권희 안홍숙 정영선 정심상
--	--	--	-----	---

◆ 2014년 청파교회 찬양대 명단

- 성가대장 : 안종일 / · 지휘 : 윤주원 / · 반주 : 최윤선 유청빈
- 소프라노 :
구명자 김재영 박성희 송양진 오현정 이경희 이부곤 정현주 한세미 홍순복
- 엘토 :
박경선 정옥영 최성애 최윤희 홍선희
- 테너 :
김범진 박영규 안길상 이광섭 이종현 장재영 정다운 한상익
- 베이스 :
김근중 박상욱 안종일 이광석 이한림 장원호 정종삼 조항범 최영돈

◆ 2014년 청파교회 교회학교 교사 명단

- 교회학교장 : 하현철
- 유아유치부 : 부장 권미정
유아부 / 최희영 류정옥 이용현 최다미
유치부 / 주혜연 박재란
- 아동부 : 부장 광권희
리봄 박영실 정운성 조지연 이진영 하진솔
- 중고등부 :
김명희 박숙영 서효진 양상철 장성호
- 청년부장 : 김경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참 즐겁게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수하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아멘. 많은 계산과 생각 속에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덧씌워진 헛되고 거짓된 것을 벗어던지고 순수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나라를 받들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웃놀이 / 2남선교회 주관	옫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신진식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성실 권사	최문희 선생 김윤정 집사

2월	영접위원	김인걸 정한구 박범희 박효선 왕영순 박미영
	헌금위원	한상익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환대하는 삶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도로시 데이에 대해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결국 이 시대가 1930년대와 같은 경제의 전면적 붕괴와 배제된 사람들의 행렬, 식량 공황과 전쟁 등의 비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선 그 시대를 가장 철저하게 살았던 정신으로부터 무언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런 맘으로 도로시 데이를 붙잡았던 것이다.

이 책(「환대하는 삶」)은 젊은 시절 도로시 데이를 만나 일생토록 교류한 정신의학자 로버트 콜스가 그와 나눈 오랜 대화를 바탕으로 써 내려간 평전이다. 이 책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대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도로시 데이는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디킨즈 등의 19세기 작가들을 사랑했지만, 동년배의 이탈리아 작가 이그나치오 실로네의 「빵과 포도주」를 특히 좋아했고, 거기에 나오는 한 일화를 일생토록 생각했다. 이그나치오 실로네 또한 도로시 데이처럼 사회주의자였으나 정치에 실망했고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희망으로 살았다. 이 일화는 아마도 실로네의 자전적 체험이 녹아 있는 듯하다.

파시스트 치하의 이탈리아에서 혁명운동가로 살다 지하로 숨어들어야 했던 주인공 페트로 스피나는 돈 파올로라는 사제로 위장해서 암약한다. 그 자신 사회주의자이지만 정치적 설교에 넌더리를 내며 무엇보다 진실한 인간을 대면하기를 바란다. 성직자 신분으로 심방을 다니던 어느 날 “맨발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키가 크고 마른” 한 젊은이를 만난다. 젊은이는 초라한 판잣집에서 살고 있다. 스피나는 젊은이와 함께 판잣집으로 간다. 도로시 데이가 일생토록 되풀이해서 읽었다는 다음 구절을 보자.

그 젊은이는 약간의 옥수수빵을 자르고, 토마토 두 알과 양파 한 알을 얇게 썰어 사제에게 내놓았다. 부어 있고 상처 자국이 남은 젊은이의 두 손에는 거친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빵을 자른 칼은 온갖 용도로 다 썼던 것처럼 보였다. 돈 파올로는 두 눈을 감

고 빵을 삼키려고 애썼다. “어떤 나라가 있어요.” 사제가 말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거기서는 시골 농부가 도시 노동자와 행동을 함께하지요.”

그러는 사이, 여관 주인 마탈레나는 사제를 찾아 이 집 저 집 다니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사제를 발견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된 지 한 시간이나 되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돈 파올로가 말했다. “여관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내 친구와 아직 할 얘기가 많거든요.”

마탈레나가 물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여서 손짓과 몸짓밖에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 젊은이는 자신의 낡은 집 문지방에서 사제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돈 파올로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의 두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오르는 걸 보았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관으로 돌아가세요. 난 배고프지 않으니깐요.” 사제가 마탈레나에게 말했다.

낡은 집 문지방에 앉은 두 남자는 이제 외로이 둘만 남게 되었다. 말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한 사람도 이제 침묵을 지켰다. 이따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날이 어두워져 저녁이 되었다가, 밤이 찾아들었다. 돈 파올로는 한두 차례 기침을 했다. 귀머거리이면서 병어리인 남자가 일어나더니, 짙으로 된 자신의 침상에 덮여 있던 담요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손님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 때 돈 파올로는 이 남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러 나가야 한다는 걸 기억해냈다. 그는 일어나 악수를 하고 잘 자라는 인사를 했다.

도로시 데이는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울음을 멈출 길이 없었다고 했다. ... 초라한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환대해주던, 결국 귀머거리이자 병어리인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제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인지, 혹은 고마움인지 모를 감정으로 눈물이 차오르는 사람, 그 영혼, 그리고 그와 나눈 침묵과 우정의 기운, 그러고는 내일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하는 고단한 삶. ... “돈 파올로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의 두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오르는 걸 보았다”. 이 대목을 나 또한 잊지 않으려 한다.